

國語 語彙의 變遷 研究(1)

金 泰 珉*

目 次

- I. 序言
- II. 語形 消滅型
- III. 語形 分化型
- IV. 語形 維持型
- V. 結論

I. 序 言

우리 人間이 매일 사용하는 언어는 自然現象과 같아서 時間이 흐름에 따라 變化한다. 그래서 日常的으로 사용되는 언어는 살아 움직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어의 경우 중세국어에 사용된 어휘와 지금의 어휘를 비교하여 보면, 많은 變化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 變化의 樣相도 갖가지인데 語形(name)이 變하는 것, 意味(sense)가 變하는 것, 또 이들 모두가 變하는 것도 있다. 또 變하는 정도에 따라 일부가 變하는 것과 아주 소멸되어 사라진 것도 있다.

그럼 15세기 국어에서 사용된 어휘가 그 후 時間이 흐름에 따라 어떠한 變遷과정을 겪었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몇 개 어휘를 대상으로 시대에 따른 變遷과정을 고찰해 보려고 한다. 그런데 기술 방법에 있어 語形變化의 樣相에 따라 구분하여 고찰한다. 즉, 語形의 變化과정에서 ① 語形이 소멸된 것, ② 語形이 分化된 것, ③ 語形이 維持된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①의 예로 '구습알다, 가수멀다'를 택했고, ②의 예로 '구초다, 두리'를 택했으며, ③의 예로 '굴히다, 곳답다'를 택하여 고찰한다.

* 國語教育科 教授

여기서 語形이 維持된 것에는 약간의 音韻變化가 있는 것도 포함시킨다.¹⁾ 이런 관점에서 '글히다>가리다'와 '곶답다>꽃답다'를 語形이 維持된 것으로 다루었다.

그리고 인용된 옛말 문헌과 그의 略號는 다음과 같다.

<訓解>	訓民正音 解例本	1446
<龍>	龍飛御天歌	1447
<釋>	釋譜詳節	1447
<月釋>	月印釋譜	1459
<榜>	榜嚴經諺解	1461
<法>	妙法蓮華經諺解	1463
<圓>	圓覺經諺解	1465
<杜初>	分類杜工部詩諺解初刊本	1481
<南明>	南明泉禪師繼頌諺解	1482
<金三>	金剛經三家解	1482
<魏老>	魏譯老乞大	1517
<魏朴>	魏譯朴通事	1517
<訓蒙>	訓蒙字會	1527
<七大>	七大萬法	1569
<類合>	新增類合	1576
<野雲>	野雲自警	1577
<石千>	石峰千字文	1583
<宜小>	小學諺解 宜祖版	1586
<新續>	東國新續三綱行實圖	1617
<杜重>	分類杜工部詩諺解重刊本	1632
<家慈>	家禮諺解	1632
<救補>	救荒補遺方	1660
<老諺>	老乞大諺解	1670
<朴諺>	朴通事諺解	1677
<譯>	譯語類解	1690
<三譯>	三譯總解	1703
<倭解>	倭語類解	18세기
<伍倫>	伍倫全備諺解	1721
<蒙老>	蒙語老乞大	1741
<同文>	同文類解	1748
<種德>	種德新編諺解	1758
<朴新>	朴通事新釋諺解	1765

1) 全在昊(1987), 國語 語彙史 研究, 경북대 출판부, p.5.

金泰垠(1989), “中世國語의 多義語 研究 - 고유어를 중심으로”, 中央大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p.130.

國語 語彙의 變遷 研究(1)

<蒙解>	蒙語類解	1768
<十九>	十九史略諺解	1772
<明義>	明義錄諺解	1777
<續明>	續明義錄諺解	1778
<方言>	方言類釋	1778
<重老>	重刊老乞大諺解	1795
<敬釋>	敬信錄諺釋	1796
<五倫>	五倫行實圖	1797
<太上>	太上感應篇圖說諺解	1852
<關明>	關聖帝君明聖經	1855
<過化>	過化存神	1880
<敬信>	敬信錄諺解	1880
<窻君>	窻君靈蹟誌	1881
<敬惜>	敬惜字紙文	1882
<南宮>	南宮桂籍	1876
<國漢>	國漢會語	1895

II. 語形 消滅型

이것은 中世國語에 쓰였던 語形이 現代國語에서는 쓰이지 않고 도중에 소멸된 것을 이르는데 '그슴알다'와 '가수벌다'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 단어들에 대하여 現用 국어사전에 '가말다'와 '가멸다'로 표기하여 실어 놓았지만, 실제로는 소멸되고 대신 '管掌하다'와 '富裕하다'라는 한자어가 널리 쓰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그슴알다

15세기와 16세기초에 '管掌하다, 主管하다'의 뜻인 단어 '그슴알다'가 폭넓게 사용되었음을 당시 문헌을 통해 알 수 있다.

- 四天下를 그슴아르시련마른(釋6:17)
- 大梵天王이 娑婆世界를 그슴아느니라(釋13:6)
- 王이 불러다가 刑罰 그슴안 官員을 삼고(釋24:14)
- 東君은 봄 그슴안 神靈이라(金三1:23)

- 짜홀 거두부는 부루물 뉘 그숨알료(誰管括地風)(金三3:31)
- 이제 와 이 그을홀 그숨아로니(今來典斯郡)(杜初25:39)
- 楊僕이 樓船을 그숨아랏도다(楊僕將樓船)(杜初21:27)
- 靑帝는 봄 그수만 神이라(南明 上22)
- 또 대귀리 수을 그수만 관원돌릭(又內府 管酒의官人門)(輔朴 上2)

위의 예를 보면 ‘그숨알다’는 한자 ‘管’하고 주로 대응하고 ‘典, 將’과도 대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타동사 ‘그숨알다’가 목적으로 취하는 대상은 모든 것을 가리킨다. 위의 예만 보아도 ‘四天下, 娑婆世界, 刑罰, 봄(春), 보름, 그을(郡), 수을(酒)’ 등.

그런데 주지하다시피 16세기중엽에 ‘△’쪽의 소실로 인하여 16세기말부터는 ‘그옴알다’로 音韻變化를 일으켜 語形이 나타난다. 다음 용례를 보자.

- 너를 命하야 음악을 그옴알게 호노니(命汝典樂)(宣小1:10)
- 史(글월 그옴안 사름이라)(宣小2:3)
- 舊例에는 살 님제 갈월 벗길 ㅅㅅ을 그옴알고 풀 님제 즈름갑을 그옴아노니(舊例 買主管稅 賣主管牙錢)(老蔘 下16)

18세기 국어에서는 17세기에 이어 ‘그옴알다’가 계속 쓰이는 한편, 제2음절에서 ‘.’ ‘ㅍ’이 쓰이지 않는 표기도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학계에서는 제2음절 이하에서 ‘.’ ‘ㅍ’이 소실되어 다른 母音에의 合流는 16세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는데,2) ‘그옴알다’는 18세기에 ‘그옴알다’와 공존하고 있다. 다음에 두 가지 예를 제시한다.

- 그저 混堂 그옴아는 이 이서 看守호리라(自有管混堂的看守)(朴新1:51)
- 또 뜨르기를 그옴아지 아니호리라(却不管退換)(重老 下60)
- 兒夫는 그저 盡心事君함을 그옴알라(兒夫只管盡心事君)(伍倫4:32)
- 일즉 검취를 그옴알매(嘗典劍州)(種德 下67)
- 셋년흔 소공이 그옴아르시고(十九1:21)

19세기에는 이 단어가 제1음절에서도 ‘.’ ‘ㅍ’이 쓰이지 않고 대신 ‘ㅅ’ ‘ㅍ’이 쓰이는 用例가 나오고 있다. 국어사에서 ‘.’ ‘ㅍ’이 제1음절에서 소실된 시기는 18세기 중엽으로 추정하고 있는데3) ‘가옴알다’는 19세기 문헌에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2) 李基文(1977), 國語 音韻史 研究, 탑출판사, p.118.
 3) 李基文(1977), 上揭書, p.121.
 허 용(1975), 국어음운학, 정음사, p.432.
 田光鉉(1971), “18세기 후기 국어의 一考察”, 전북대 논문집 13집, p.55.

國語 語彙의 變遷 研究(1)

- 선악부칙을 가음아는지라(掌校善惡冊)(過化12)
- 옥 가오마는 아전이 되엇더라(吏司獄)(太上2:8)
- 하늘과 땅히 허물 가아마는 신령이 잇서(天地有司過之神)(太上 大文解1)

위에서 「太上感應篇圖說諺解」에 나오는 예문을 보면 같은 문헌에 '가오말다'와 '가아말다'가 混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20년에 간행된 조선총독부편 「朝鮮語辭典」에서도 '가음알다'로 이 단어를 다음과 같이 실고 있다.

- 가음알다 : 司る.(略, 감알다)

그리고 1938년에 간행된 文世榮의 「朝鮮語辭典」에도 이 단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고 있다.

- 가오말다 : 맡은 일을 처리하다. 일을 담당하다. 재량하다.
- 감알다 : 「가오말다」의 준말.

現用 국어사전에 이 단어에 대하여 '가말다'라는 語形으로 실어 놓고는 있으나 실제로 言衆들은 사용하지 않고 대신 한자어 '主管하다' 또는 '管掌하다' 등으로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이 단어에 대하여 金亨奎(1955)는 소멸어휘로 다루고 있고⁴⁾ 成煥甲(1983)은 고유어 退化型으로 다루면서 死語에 가깝다고 언급하고 있다.⁵⁾

지금까지 고찰한 바를 토대로 15세기 이후 현재까지 변천해 온 語形의 모습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고음알다(15세기) > 고음알다(16세기 중엽) > 고음알다(18세기) > 가음알다(19세기)
> 가오말다, 감알다(준말)(20세기 前半) > 主管하다, 管掌하다(現)

2. 가수멀다

15세기에 단어 '가수멀다'가 '富裕하다, 豊富하다'의 뜻으로 폭넓게 사용되었다. 다음과 같

4) 金亨奎(1955), 國語史, 白映社, p.294.

5) 成煥甲(1983), "固有語의 漢字語 代替에 관한 研究", 中央大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p.20.

이 15세기 문헌에서 나타나는 用例을 제시한다.

- ① 글도 만히 알며 가수며려 布施도 만히 하더니(釋6:12)
- ② 居士는 천량 만히 두고 가수며 사는 사르미라(釋9:1)
- ③ 衣食이 가수며려니(月釋21:99)
- ④ 位 | 諸佛에 지나시고 가수며로몬 萬德을 두겨시니(位過諸佛 富有萬德)(金三 2:59)
- ⑤ 보니 그리 가수며며 뜨디 너부니와(觀夫文富義博)(圓 序79)

위의 예를 보면 '가수며다'는 ① ② ③과 같이 물질적인 재산이 많다는 '富裕하다'의 뜻과 ④⑤에서 처럼 德이나 글(文)이 '많다(豐富하다)'는 뜻으로 쓰인 것으로 보아, 이 단어는 물질적인 것이나 정신적인 것을 가리지 않고 豊富하다는 개념으로 여러 대상과 共起(co-occurrence)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가수며다'는 16세기 중엽에 '△'표가 붙어 소실되면서부터는 '가우며다' 또는 '가움열다'로 표기된다. 다음에 16세기와 17세기 문헌에서 예를 제시한다.

- 가우며 부 : 富(石千22)
- 그 가우며며 貴흥을(富貴)(宣小5:64)
- 가움여름과 貴흥애(富貴)(宣小4:9)
- 아츰리 가우며 것 透葬을 맛보니(朝逢富家葬)(杜重2:70)
- 北녀 무올랜 가우며로미(北里富)(杜重2:68)

18세기에는 이 단어가 '가움열다'로 표기되기도 했지만 제2음절에서 '·'표가 붙지 않은 '가움열다'로 표기한 것과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앞에서 기술한 '구음알다, 구음알다'와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다. 18세기 문헌에서 用例을 제시한다.

- 가움열고 늬흥을 삼각흥이오(三譯3:24)
- 사름이 橫財를 잊지 못하면 가움여지 못하코(人不得橫財不富)(重老 上29)
- 당슈하코 가움열고(壽富)(十九1:13)
- 가움연 이라도(富的)(伍倫2:9)

19세기에는 語形이 완전히 '가움열다'로만 나타나고 있다. 다음에 用例을 제시한다.

- 히마다 가음열고(太上2:79)
- 가득히되 넘치져 아니하면 길게 가음연 거슬 적회을 거시오(窺君38)
- 가음열불 미더 곤궁한 이물 업수이 너이지 말며(敦信10)

20세기에는 조선총독부편 「朝鮮語辭典」에는 이 말('가음열다' 또는 '가멸다')이 실려 있지 않으나, 文世榮편 「朝鮮語辭典」에는 음절이 단축된 '가멸다'라는 표기로 다음과 같이 실려 있고 '가음열다'는 옛말로 처리하고 있다.

- 가멸다(形) : ① 집안이 부요하다. 재산이 많다. ② 넉넉하다.

이것으로 보아 1930년대에는 '가멸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에 대한 의미가 '재물이 넉넉하다'로 풀이된 것으로 보아 15세기에 비하여 의미가 축소되었다. 15세기에는 '가수멸다'가 정신적인 것이 풍부하다고 서술할 때에도 이 단어가 쓰였기 때문이다.⁶⁾

이 '가멸다'라는 단어도 現用되는 국어사전에는 실려 있으나 言衆들의 입에서는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金亨奎(1955)도 '가수멸다'를 소멸어휘로 처리하고 있고, 崔範勳(1985)도 이 단어를 漢字語化된 말로 다루고 있다.⁸⁾ 그래서 言衆들은 이 말 대신에 한자어 '富裕하다'나 '豊富하다'를 사용하고 있는데, 한자어의 침투가 고유어를 몰아낸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고찰한 바를 토대로 이 단어가 어떠한 변천과정을 겪었는가를 도식화하여 본다.

가수멸다(15세기) > 가우멸다(16세기 중엽) > 가음열다, 가음열다(18세기) > 가음열다(19세기) > 가멸다(1938년) > 富裕하다, 豊富하다(現)

III. 語形 分化型

한 語形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여럿일 때 言衆들은 그 의미들에 대한 辨別負擔量이 커질 수도 있다. 그래서 言衆들은 그 단어에 대하여 불편을 느끼고, 의미 분화에 따른 새로운 명칭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여기서는 15세기 국어에서 多義로 쓰였던 단어인 '7초다'와 '드

6) 現用되는 신기철·신용철편 「새 우리말 큰사전」에는 '가멸다'에 대하여 '재산이 많고 살림이 넉넉하다'로 풀이되어 있다.

7) 金亨奎(1955), 前掲書, p.291.

8) 崔範勳(1985), 韓國語發達史, 通文館, p.142.

리'가 후에 어떻게 語形이 分化되어 變遷했는가를 살핀다.

1. 古초다

15세기에 단어 '古초다'는 多義語로서 ① 隱蔽하다(藏) ② 貯藏하다 ③ 具備하다 등의 뜻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단어에 대해 劉昌惇(1974)은 '具'와 '藏'의 두 가지로 쓰이는 同音語로 처리하고 있으나⁹⁾ 이 말의 두 의미 사이에는 有緣性이 있으므로 多義語로 취급함이 옳다. 먼저 15세기 문헌에 나타나는 용례를 의미별로 정리한다.

① 隱蔽하다(藏)

- 안해 古초고(內秘)(法2:175)
- 하나한 古초아 두픈 쁘디니(一隱覆義)(圓 上一之二177)

② 貯藏하다

- 庫는 천량 古초아 뒷는 지비라(釋9:20)

③ 具備하다

- 뒤 征伐호물 古초아 ㅎ눈다(備征狄)(杜初7:25)

이상과 같이 語形 '古초다'가 세 가지 의미로 쓰였지만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정리할 수 있다. 즉 ①②는 '藏' 또는 '隱'의 뜻이고 ③은 '具'의 뜻이다. 그런데 벌써 15세기에 '藏'의 뜻을 나타내는 것은 語形이 음운변화를 일으켜 '근초다'로 쓰이기 시작하는데, 위에서 든 예 ①에서는 같은 문헌이지만 '古초다'로 표기되고 있다. 이러한 예로 볼 때 「法華經諺解」가 刊行된 1463년 무렵에 '藏'의 의미는 語形이 '古초다'에서 ㄴ첨가되어 '근초다'로 쓰이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 한 모딘 이롤 숨겨 근출치 일후미 覆리오(法6:175)

9) 劉昌惇(1974), 語彙史研究, 선명문화사, p.119.

15세기 국어에서는 ‘藏’과 ‘具’의 의미의 分化에 따라 語形도 分化되어 따로 발달되어 가는데, 전자를 ‘감추다’형, 후자를 ‘갖추다’형으로 하여 고찰한다.

(1) ‘감추다’형

15세기에는 前述한 바와 같이 ‘藏’의 의미로 「法華經諺解」에서 한 번 나타날 뿐 語形이 ‘근초다’였다. 그런데 16세기에는 語形이 ‘근초다’ 또는 ‘곰초다’로 음운변화를 일으켜 쓰이고 있는데 다음에 용례를 제시한다.

- 길우며 엇글우며 근초와(七大14)
- 근초며 나토물 한 가지로 흐며(野雲67)

- ① 곰출 도 : 箱(類合 下39)
- ② 아이게 노호음울 곰초아 두다 아니흐며(不藏怒焉)(宣小4:36)
- ③ 여러 가짓 거슬 보미 다 내야 녀르메 길어 그슬히 다 結實히와 거스레 다 곰초와(七大17)

위의 예 중 ③의 ‘곰초다’는 ‘貯藏하다’의 의미로 쓰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語形은 ‘隱蔽’와 ‘貯藏’의 의미를 16세기에도 지니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17세기에는 이 말의 語形이 ‘근초다’는 나타나지 않고 ‘곰초다’로만 쓰였는데 다음과 같다.

- 아모 짜히 곰초앗다 흐고(藏某地)(新續 孝8:57)
- 노폰 그올히 그륄 부체물 곰초고(高秋收蓄扇)(杜重10:36)
- 곰초다(藏者)(譯 下45)

18세기에도 語形이 17세기와 같이 ‘곰초다’로 대부분 쓰이지만, 제1음절에서의 ‘, ’획의 소실로 인한 ‘감초다’가 발견되기도 한다. 그런데 17세기에 이어 18세기에도 이 말이 ‘貯藏’의 의미로 쓰인 것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 표동 속에 곰초고 또 언약흐되(續明1:6)
- 모든 역적이 머리롤 곰초고 그림주물 숨겨(明義1:26)
- 사오나온 일을 곰초자(蒙老7:12)
- 그 기르마를 곰초니(藏其鞍)(種德 下52)
- 감초다(藏着)(蒙解 上22)

위의 예에서 보듯 18세기 문헌인 「蒙語類解」(1768)에서 '감초다'로 語形이 음운변화를 일으킨 이후 19세기에는 '감초다'로만 표기되고 있다. 다음의 용례를 보자.

- 오직 금을 아모테 감초앗시니(五百金藏某處)(太上4:52)
- 마음에는 한 길 여덟즈되는 창을 감초고(心藏丈八矛)(關明35)

20세기 初에 나온 문헌에도 '감초다'이나(감출 구: 區, 字典 上13), 조선총독부편 「朝鮮語辭典」에는 語形이 '감초다'와 '감추다'로 실려 있다. 이 당시에 이 말에 대한 모음조화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음 예를 보면 알 수 있다.

- 감초다: 隱す.
- 감추다: 「감초다」に 同じ.

이후 文世榮편 「朝鮮語辭典」을 보면 語形이 '감추다'로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사전에서 보인 다음의 풀이를 보자.

- 감초다: 「감추다」에 보라.
- 감추다: ① 들어내지 아니하다. 가리어 두다. ② 숨기다. 보지 못하게 하다. ③ 남에게 알리지 아니하다. 비밀히 하다. ④ 파묻다. ⑤ 넣어두다.

지금까지 고찰한 의미 '藏'(隱蔽)에 대한 語形의 변천과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꺄초다(은폐, 저장, 具)(15세기) > 꺄초다, 꺄초다(은폐, 저장)(16세기) > 꺄초다(은폐)(17세기) > 감초다(은폐)(18세기 중엽) > 감추다(1938년)

한편 이 단어와 중세국어에 類義關係를 이루었던 語形 '값다'(藏)는 17세기 전반까지만 쓰이고 소멸된 것으로 보인다. '꺄초다'와의 類義語 경쟁에서 패배한 것이다.

(2) '갓추다'형

15세기에 語形 '꺄초다'가 '具'의 뜻으로 쓰인 것은 前述한 바 있다. 16세기에도 語形 '꺄초다'가 그대로 쓰이는 한편, 음운변화를 일으키어 語形이 '꺄초다'로 나타나기도 하여, 의미

에 따라 語形이 따로 발달됨을 알 수 있다.

- 古술 구 : 具(石千34)
- 돌고 만난 거술 古초고(具甘旨)(宣小6:92)
- 소와 양이며 창적을 곧초아(牛羊倉廩備)(宣小4:8)
- 利하며 害로움을 곧초와 술와(具利害而白之)(宣小5:36)

그러나, 아직도 17세기에는 '古초다'가 주로 쓰이고 있다.

- 손조 제찬을 古초더니(手具祭饌)(新續 烈2:31)
- 饋는 음식 古초아 친히 진지호미라(家諺4:23)
- 龍 머인 술워 충충인 虛空에 古초향앗도다(龍駕具層空)(杜重11:23)

이에 비하여 18세기에는 '古초다'가 우세한 표기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표기의 보수성으로 인하여 語形 '古초', '古초아' 발견된다.

- 왕세손이 익선관과 곤룡포를 古초오사(明義1:21)
- 그 사람이 실상을 古초고(其人具以實)(種德 上21)
- 네물 古초와 서방 맞쳐 보내니라(備以嫁之)(種德 上21)
- 酒찬을 古초아 아비 섬기듯 古초더니(具酒饌如事父)(五倫1:65)

19세기에는 '古'가 '古'가 소실된 語形 '갓초다'가 표기되어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 주식과 지전을 만히 갓초아 酒라한디(供酒食多予權錢)(太上2:18)
- 제향하는 법이 갓초와(祀之典備)(南宮3)

그런데 19세기 末에는 '갓초다'가 모음조화가 적용되지 않은 語形 '갓추다'로 바뀌어 쓰이기도 한다.

- 갓추다(具備)(國漢 p.125)
- 갓출 비 : 備, 갓출 구 : 具(國漢 p.125)

이러한 현상은 20세기 初에 간행된 조선총독부편 「朝鮮語辭典」에도 계속된다.

- 갓초다 : 備ふ.
- 갓추다 : 「갓초다」に 同じ.

'갓초다'에서 '갓추다'로 바뀐 이 단어는 文世榮撰 「朝鮮語辭典」에는 ㅈ받침을 사용하여 '갓후다'로 표기하고 발음은 [가추다]로 한다고 표시되어 있다.

- 갓후다 [가추](他) : ① 미리 차려 놓다. 모자라지 않게 준비하다. ② 가추 가지다.

이 사전에서 이렇게 語形을 '갓후다'로 한 것은, 이전에 사정한 「조선어 표준어 모음」에 語形을 '갓후다'(備)¹⁰⁾로 맞춤법을 정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이 말에 대한 맞춤법을 '갓후다'로 하여 ㅈ받침을 사용한 것은 당시에 사용되는 형용사 '갓다'(備)와 관련시켜 共時的 방법에 의한 파생으로 생각했을 것으로 추정된다.¹¹⁾ 이 '갓후다'는 중세국어에서 기본형이 '갓다'로, 古즈나(具)(標3:111), 古줄 비 : 備(類合 上9) 등으로 활용되었다.

그 후 '갓후다'는 1940년 6월 15일, 통일안 내용의 일부를 개정하면서 지금과 같이 '갓추다'로 쓰도록 하였는데 접미사 '-후'를 '-추'로 한 것이다.

지금까지 고찰한 의미 '具'에 대한 語形의 변천과정은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古초다(은폐, 저장, 具)(15세기) > 古초다, 古초다(具)(16세기) > 古초다(18세기) > 갓초다(19세기) > 갓추다(19세기 末) > 갓후다(1936년) > 갓추다(1940년)

2. 두리

語形 '두리'가 15세기와 16세기에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의미로 쓰였다.

① 橋

- 두리에 벼던 마물(橋外隕馬)(龍87)
- 두리가爲橋(訓解)
- 두리 교 : 橋(訓蒙 中7)

② 梯

- 두리 업건마른(雖無梯矣)(龍34)

10)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 조선어학회, 1936, p.23.

11) 어휘형성을 '갓+후+다'로 파악.

- 두리와 사오리와(梯躋)(圓 下三之一118)
- 두리 데 : 梯(訓蒙 中7)

③ 階

- 等覺妙覺에 두리 디르며(途階等妙)(楞6:89)
- 어는 두리로 네 方便으로 나물 외오 허다가(何階子方便譯引)(杜初16:1)
- 두리 계 : 階(石千:20)

이와 같이 語形 '두리'가 중세국어에 세 가지 의미로 쓰여 多義語가 된 것은, 이것들이 어떤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준다는 기능적 類似에서 쉽게 轉移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Ullmann은 意味間的 類似認識으로 본래의미와 파생의미의 관계를 설명했다.¹²⁾

그런데, 17세기에는 語形 '두리'가 '階'의 의미로 쓰인 것은 나타나지 않고, '橋'와 '梯'의 의미로 쓰인 것이 散見된다. 다음의 용례를 보자.

① 橋

- 불을 만나 두리물 늦는다 흐느니라(遇水送橋)(朴諺 中33)
- 두리(橋)(譯 上14)

② 梯

- 슬피 놀에 불러 구름 신 두리에 올라가늦다(悲歌上雲梯)(杜重1:23)
- 두릿 길히 幽深한 디 버므렛도다(梯徑繞幽深)(杜重9:36)

그러나, 17세기 말에는 이 단어의 의미분화에 따른 語形의 分化現象이 나타나는 용례가 발견된다.

- 사두리(梯)(譯 上14)

語形 '두리'(N₁)가 가지고 있던 의미 '橋'(S₁)와 '梯'(S₂) 중 S₂가 새로운 명칭의 필요성을 느껴, 접두 파생법에 의하여 '사두리'(N₂)라는 語形으로 분화한 것이다.¹³⁾

12) S. Ullmann著 · 南星祐譯(1981), 意味論의 原理, 탑출판사, p.239.

13) 여기서 N은 name(語形, 名稱), S는 sense(意味)를 나타낸다.

한편, 語形 '다리'가 보유하고 있던 '階'(S₃)에 대한 의미는 한자어 '層階'(N₃)라는 語形(名稱)이 대신하였는데 그 용례가 18세기 문헌에서 발견된다.

○ 層階(蒙解 上25)

「蒙語類解」(1768)에서 한자어 '層階'에 대해 대응되는 고유어를 표기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층계'에 대응되는 고유어가 없었음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19세기 문헌인 「國漢會語」에서도 이런 현상은 계속된다. 층계(層階)(國漢 p.309).

이렇게 하여 18세기 국어에서는 語形 '다리'가 '橋'의 의미로만 쓰이고, 語形 '사다리'는 '梯'의 의미로만 쓰이며, '階'의 의미로는 語形 '層階'가 쓰인다.

(1) '다리'型

- 二十里 곳에 한 다리 문허것드니(蒙老2:9)
- 다리(橋)(蒙解 上31)
- 외나무 다리(獨木橋)(方言2:18)

위의 예에서 보면 18세기에 語形 '다리'가 그대로 쓰이면서 18세기 말 문헌인 「方言類釋」에서는 'ㅁ'음이 소실된 語形 '다리'가 보인다. 이것은 'ㅁ'음의 非音韻化로 인한 것으로 이후로는 '다리'(橋)로만 쓰여 '다리'(脚)와 同音語가 되었다. 「國漢會語」(1895)에 '다리 각(脚), 다리 교(橋)'(p.23)의 語例가 보인다.

그리고, 단어 '다리'(橋)는 현대국어에서 '橋梁'의 뜻 이외에 '仲介'나 '媒介'의 추상화된 의미로도 쓰여 多義가 되었다.

(2) '사다리'型

- 사다리(梯子)(蒙解 下12)(同文 下16)
- 사다리 데 : 梯(倣解 上33)

前述한 바와 같이 17세기 말에 語形分化되어 '사다리'로 쓰이기 시작한 이 말은 18세기에 도 그대로 쓰였으며, '구름다리(雲梯)(蒙解 上37, 方言2:17)라는 합성어도 이 시기에 나타난다. 현대국어에서 '구름다리'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 말의 뜻은 '도로·계곡·철도 등을 횡단하기 위하여 공중으로 건너질러 놓은 다리'로 高架橋, 陸橋, 雲橋, 棧橋라는 단어로도 쓰인다.

그러니까 '구름다리'와 '구름다리' 사이에 음운변화는 있으나 語形은 그대로 사용된다. 이에 비하여 이에 해당되는 한자어는 '雲梯'에서 '雲橋'로 바뀌었다. 그러므로 의미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¹⁴⁾

한편 19세기에는 '사다리'가 '사닥다리'로도 불린다.

- 사닥다리 梯 : 梯(國漢 p.49)
- 사닥다리(梯) : 梯(國漢 p.522)

위의 예와 같이 「國漢會語」에는 전부터 써오던 語形 '사다리'는 실려 있지 않고, '사닥다리'만 실려 있는 것으로 보아 '사닥다리'가 더 사용빈도가 높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판단은 조선총독부편 「朝鮮語辭典」에 '사닥다리'에 대해 뜻풀이를 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다음을 보자.

- 사닥다리 : 梯子
- 사다리 : 「사닥다리」에 同。

이후 文世策편 「朝鮮語辭典」부터 모든 국어사전은 '사다리'를 '사닥다리'의 준말로 처리하고 있다.

지금까지 고찰한 語形 '다리'의 변천과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 다리(橋, 梯, 階)(15세기) > 다리(橋, 梯)(17세기) > (1) 다리(橋)(18세기)
 > (2) 사다리(梯)(17세기 末)
 (3) 層階(階)(18세기)
- (1) 다리(橋)(18세기) > 다리(橋)(18세기 末) > 다리(橋梁, 媒介)(現)
 (2) 사다리(梯)(17세기 末) > 사닥다리(19세기 末) > 사닥다리, 사다리(준말)(現)

IV. 語形 維持型

語形 維持型의 어휘는 語形이 음운변화는 있되 그 골격은 유지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14) '운제(雲梯)'의 의미는 ① 높은 사닥다리. ② 옛날에 성(城)을 칠 때에 쓰였던 것으로 구름에 닿을 만큼 높은 사다리. [새 우리말 큰사전]

다루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어휘가 의미는 후에 변화를 보이는 것들이다.

1. 굴히다

① 區分하다

- 시혹 이 法과 法 아니로물 굴히면(或分別是法非法)(金三2:35)
- 그 邪와 正과를 굴히시며 凡과 聖과를 굴히시며(其簡邪正辨凡聖)(圓 上一之一 29)

② 擇하다

- 決斷하야 굴히야 理를 아라(決擇悟理)(圓 上一之一5)

위의 용례는 15세기에 쓰인 것들인데, '굴히다'의 의미가 '區分하다'와 '擇하다'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16세기에도 그대로 지속된다. 용례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① 區分하다, 區別하다

- 굴힐 別 : 別(類合 上17)
- 굴힐 辨 : 辨(類合 下18)
- 남진과 겨집이 굴히요미 이시며(夫婦有別)(宣小1:10)
- 羊鹿車와 白牛車를 엇에 굴히리잇고(羊鹿之車與白牛之車如何區別)(六祖 中68)

② 擇하다

- 굴힐 擇 : 擇(類合 下8)
- 굴힐 揀 : 揀(類合 下10)
- 사괴여 놀 사롬을 잘 굴히야 학며(能擇交遊)(呂氏4)

이와 같이 16세기에도 語形이 '굴히다'인데 다만 「七大萬法」(1569)에 '굴히다'의 표기가 나온다. 그러나 같은 문헌에 '굴히다'가 표기된 것으로 보아 '굴히다'는 誤刻일 것으로 추정된다.

國語 語彙의 變遷 研究(1)

- 귀는 원 율흔 일 굴이야 드르라 주시고(七大10)
- 누는 원 율흔 일 굴히야 보라 주시고(七大10)
- 이븐 원 율흔 말 굴히야 니르라 주시고(七大10)

17세기에도 중세국어와 語形이나 의미가 다름이 없으나, 표기에 ‘굴히다’가 나음이 표기법의 변화가 있음을 알게 한다.

- 밀 닷 되물 정히 굴히여 복가(麥五升取精炒)(敎補11)(가람본)

18세기에는 語形은 ‘굴히다’가 많이 쓰이고 ‘굴의다’도 발견된다. 다음의 용례를 보자.

- 오직 將軍은 굴히여 쓰쇼셔(惟將軍擇而用焉)(伍倫8:28)
- 淸淨한 곳 서늘한 나모 아티물 굴히여 띠고(揀箇淸淨去處陰涼樹底下綰住)(朴新1:42)
- 조흔 것술 굴의어 앓지 말며(敎釋70)

19세기에는 제1음절에서도 ‘ㅍ’를 사용하지 않은 ‘갈히다’ 형태로 나타나고, 19세기 말에는 단모음화되어 ‘갈히다’ 또는 ‘가리다’로 쓰이고 있어 후자의 경우 현대국어와 같다.

- 비필을 갈히여 시집 보느고(寵君19)
- 갈히다(擇也)(國漢 p.369)
- 가리다(擇出)(國漢 p.363)

18세기부터 19세기에 걸쳐 쓰인 이 단어의 의미가 ‘擇하다’의 뜻으로만 나타나지만 이는 자료 부족으로 未見일 뿐이지 ‘구분하다’의 뜻으로도 쓰였을 것이다. 現用 국어사전에는 ‘가리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뜻풀이를 하고 있는데, 이는 의미가 중세국어에 비하여 확대되었음을 뜻한다.

- 가리다 :
 - ① 여럿 가운데서 일정한 것을 골라내다.
 - ② 어린아이가 낯선 사람을 알아보고 싫어하다.
 - ③ 어린아이가 똥이나 오줌을 마구 싸지 않고 놀 곳에 누게 되다.
 - ④ 치러 주어야 할 셈을 따지어 갚아 주다.
 - ⑤ 형클어진 머리털을 초벌 빗다.

[새 우리말 큰사전]

한편, '내다'의 의미로 '그려내다'라는 단어가 16세기부터 18세기에 걸쳐 대화체 문헌에서 발견됨을 밝혀준다.

- 둥간에 반이나 그려내여(中間剝落了一半)(鰓老 下54)
- 둥간에 반이나 곁여내여((中間剝落了一半)(老諺 下49)
- 中間에 반을 그려내여(中間剝落了一半)(重老 下51)

'굴히다'의 변천과정을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굴히다(15세기) > 굴희다(17세기 중엽) > 갈희다(19세기) > 갈히다, 가리다(19세기末) > 가리다(20세기)

2. 꽃답다

'꽃답다'는 중세국어에 '향기롭다'(香)와 '아름답다'(美)의 뜻으로 쓰였으나 주로 전자의 뜻으로 쓰였다. 이러한 語形과 의미는 17세기까지 유지된다.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① 香氣롭다

- 畚 蘭과 菊 花 | 各各 져여곰 꽃다오니라(春蘭秋菊自馨香)(金三4:53)
- 꽃다울 향 : 香(訓蒙 下13)
- 부르미 부니 細細히 꽃답도다(風吹細細香)(杜重10:18)

② 아름답다

- 저근 한오새 꽃다운 프를 纏히앗더니(小橋纏芳蓀)(杜初8:6)
- 저근 핫오새 꽃다운 프를 纏히앗더니(小橋纏芳蓀)(杜重8:6)

18세기에는 '꽃답다'가 경음화하여 '꽃답다'로 쓰이기 시작한다.

- 붉근 계혜 다섯 가덜고 꽃다왓도다 히니라(丹桂五枝芳)(種德 上20)
- 꽃답다(芳菲), 꽃다울 방 : 芳(國漢 p.394)
- 꽃답다 : 美(草木·花卉等に いふ)(조선총독부편, 朝鮮語辭典)

위에서 보면 18세기부터는 이 말이 '향기롭다'는 뜻보다는 '아름답다'는 뜻으로 주로 쓰였다는 느낌을 준다. 現用 국어사전에 '꽃답다'가 '향기롭다'는 뜻은 없고 '아름답다'의 뜻만으로 풀이하고 있듯이, 이 단어를 중세국어와 비교하여 볼 때 그간의 의미변화를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의미가 축소되었다.

○ 꽃답다 :

① 꽃과 같이 아름답다.

② 꽃으로서의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다. [새 우리말 큰사전]

이상으로 '꽃답다'에 대하여 고찰한 변천과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꽃답다(15세기) > 꽃답다(18세기) > 꽃답다(1933년)

V. 結 論

이상과 같이 어휘 변천을 ① 語形이 소멸된 것(그솨알다, 가수멀다), ② 語形이 分化된 것(그초다, 드리), ③ 語形이 維持된 것(굴히다, 꽃답다)으로 나누어 그들 어휘의 변천 과정을 시기별로 고찰하여 변화의 모습을 살폈는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그솨알다

중세국어에 폭넓게 사용된 이 단어는 현대국어에서는 소멸되고, '主管하다, 管掌하다'의 한자어로 대체되었다.

語形의 변천 과정은,

그솨알다(15세기) > 그옴알다(16세기 중엽) > 그옴알다(18세기) > 가옴알다(19세기)
> 가옴알다, 감알다(준말)(20세기 前半) > 主管하다, 管掌하다(現)

(2) 가수멀다

중세국어에 폭넓게 사용되었는데 현대국어에서는 소멸되고, '富裕하다, 豊富하다'의 한자어로 대체되었다.

語形의 변천 과정은,

가수별다(15세기) > 가우별다(16세기 중엽) > 가움열다, 가움열다(18세기) > 가음열다(19세기) > 가멸다(1938년) > 富裕하다, 豊富하다(現)

(3) 古초다

15세기에 ‘은폐, 저장, 具備’의 뜻으로 쓰였으나 16세기에는 의미분화에 따라 語形도 分化하여 현재는 ‘감추다’와 ‘갓추다’의 단어로 쓰인다.

감추다형 : 古초다(은폐, 저장, 具)(15세기) > 古초다, 古초다(은폐, 저장)(16세기) > 古초다(은폐)(17세기) > 감초다(은폐)(18세기 중엽) > 감추다(1938년)

갓추다형 : 古초다(은폐, 저장, 具)(15세기) > 古초다, 古초다(具)(16세기) > 古초다(18세기) > 갓초다(19세기) > 갓추다(19세기 末) > 갓추다(1936년) > 갓추다(1940년)

(4) ㄷ리

중세국어에 ‘橋, 梯, 階’의 의미로 쓰였으나 17세기 末부터는 의미분화에 따라 語形의 分化도 일어나 현재는 ‘다리(橋), 사다리(梯)’의 分化된 어휘가 있고, ‘階’의 의미는 한자어 ‘層階’로 대체되어 쓰인다.

ㄷ리(橋, 梯, 階)(15세기) > ㄷ리(橋, 梯)(17세기) > (1) ㄷ리(橋)(18세기)
> (2) 사ㄷ리(梯)(17세기 末)
(3) 層階(階)(18세기)

(1) ㄷ리(橋)(18세기) > 다리(橋)(18세기 末) > 다리(橋梁, 媒介)(現)
(2) 사ㄷ리(梯)(17세기 末) > 사다리(19세기 末) > 사다리, 사다리(尊말)(現)

(5) 굴히다

음운변화는 있되 語形의 골격은 현대국어까지 유지되고 있다. 중세국어 ‘굴히다’는 ‘區分하다’와 ‘擇하다’의 뜻으로 쓰였으나, 현대국어 ‘가리다’는 더 많은 의미로 쓰이고 있어 의미가 확대된 것이다.

굴히다(15세기) > 굴희다(17세기 중엽) > 갈희다(19세기) > 갈히다, 가리다(19세기 末) > 가리다(20세기)

(6) 곳답다

중세국어에서 ‘곳답다’로 쓰인 이 단어는 현대국어에서는 ‘꽃답다’로 쓰이므로 음운변화는

있되, 語形은 유지되고 있다. 의미면을 보면, 중세국어에서는 '향기롭다'는 뜻으로 주로 쓰이고 '아름답다'는 뜻도 조금 쓰였으나, 현대국어의 '꽃답다'는 '향기롭다'는 뜻은 없고 '아름답다'의 뜻으로만 쓰인다.

꽃답다(15세기) > 꽃답다(18세기) > 꽃답다(1933년)

參考文獻

- 金泰琨(1989), “中世國語의 多義語 研究 - 고유어를 중심으로”, 中央大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金亨奎(1955), 國語史, 白映社.
南星祐(1990), “國語의 語彙變化”, 국어생활 22호, 국어연구소.
馬聖植(1987), “國語 語義變化 類型에 관한 研究”, 中央大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박병채(1989), 국어발달사, 새영사.
成煥甲(1983), “固有語의 漢字語 代替에 관한 研究”, 中央大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유창돈(1974), 어휘사연구, 선명문화사.
李基文(1977), 국어 음운사 연구, 탑출판사.
田光鉉(1971), “18세기 후기 국어의 一考察”, 전북대 논문집 13집.
全在昊(1987), 국어 어휘사 연구, 경북대 출판부.
최범훈(1985), 한국어발달사, 통문관.
허 웅(1975), 국어음운학, 정음사.
S. Ullmann著·南星祐譯(1981), 意味論의 原理, 탑출판사.
조선총독부편(1920), 朝鮮語辭典.
文世榮편(1938), 朝鮮語辭典.